

# 하남,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 프로젝트로 경제대성 '도약'

하남성이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 프로젝트에 적극 나서며 지역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남성통계국에 따르면 2025년 1월-11월 하남성 규모이상(년매출 2,000만원 이상) 산업 부가가치, 고정자산 투자, 사회소비재 소매액 지표가 각각 8.4%, 4.3%, 5.8% 증가해 경제대성 2위, 중부지역 2위를 차지했다.

하남성은 2025년 7월 <하남성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 첫번째 중점 프로젝트 참여 공략 사업 방안>을 발표하고 일련의 제도적 개혁 조치를 통해 발전 저해 요소를 제거했다. 또한 기업 이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업 편의·이전 원스톱 처리' 개혁을 단행하고 여러 부서에 분산돼있던 이전 신청 절차를 통합해 기업이 이전 목적지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 11월말 기준, 하남성 실제 경제체제는 1,156만 2,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다. 해당 개혁을 통해 편리하게 성간 이전을 실현한 기업은 2,582개로 집계됐다.

물류비용 절감에도 힘썼다. 하남성은 항공-철도-도로-수로 종합 교통망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중대 프로젝트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복합운송 절차 간소화 개혁을 추진해 여러 운송 방식간 원활한 전환을 실현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



2025년 12월 12일, 하남성 상구(商丘)시 예상(豫商) 경제기술개발구의 한 신에너지차 기업에서 생산직업종인 직원. / 신화넷

분기-3분기 하남성 사회물류 비용과 지역생산총액 비율은 13.4%로 전국 평균 수준보다 0.6% 포인트 낮았다.

하남성은 지난 1년 동안 전례없는 강도로 내륙 항운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항구와 내륙 산업단지를 잇는 사영하(沙颍河)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회하(淮河)·당하(唐河) 등 항로를 정비해 선박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내륙 도시와 장강삼각주 세계급 항구군을 연결하는 '황금수로'로 거듭난 사영하는 '황금효과'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있다. 익해가리(益海嘉里), 안

강(安钢), 서무통(瑞茂通) 등 대기업 프로젝트들이 잇달아 몰려들어 철강 신소재, 농산물 정밀가공 등 항만형 산업이 빠르게 발전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하남성의 컨테이너 항로는 총 48개에 달한다. 2025년 1월-11월 하남성 항구 처리량은 6,067만 6,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2% 늘었다. 또 정주-산동성 청도·강소성 련운항·절강성 녕파 등 철도-해상 복합운송 열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했다. 연해 6개 주요 항구까지의 철도-해상 복합운송을 통한 컨테이너 운송량은 9.8% 늘어난 53만

1,000TEU(标准箱)에 달했다.

이를 기반으로 수출입 규모도 확대됐다. 2025년 1월-11월 하남성 수출액은 총 8,402억 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

과학기술혁신에도 적극 나섰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11월 하남성의 전략적 신흥산업과 첨단제조업 부가가치는 각각 12.5%, 15.7% 올랐다. 국가 하이테크 기업과 국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은 각각 1만 2,800개, 3만개에 달했으며 기술 계약 거래액은 63.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힘입어 하남성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분기-3분기 하남성 지역생산총액은 4조 8,867억 5,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확대됐다. 이는 전국 수치보다 0.4%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중원(中原) 경제발전연구원 경명재(耿明斋) 원장은 "지난해 1월-11월 데이터를 보면 하남성 경제는 전국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주로 혁신 주도 덕분에"라고 말했다. 하남성이 기업의 혁신주체 역할을 강화하고 산업사슬과 혁신사슬의 심층적인 연계를 추진해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강점을 육성해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 신화넷

## 해남 전면 봉관 시행 한달... 대외무역·면세 시장 활기



해남 삼미국제면세성 / 신화넷

해남자유무역항 전면 봉관 시행이 18일 한달을 맞이했다. 해구세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2025년 12월 18일 봉관 시행 이후 해남의 신규 등록 대외무역 기업은 5,132개로 집계됐다.

지난 한달 동안 각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면서 대외무역 통로 '1선'과 내지와의 무역 통로 '2선'이 원활히 운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해남자유무역항 봉관 첫달 세관이 '일선'에서 관리 감독한 '제로관세' 화물은 7억 5,000만 원 규모를 기록했다. 현지 기업, 병원, 연구기관은 '제로관세'의 물자 및 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관광·운송 등 분야의 기업 역시 영업

용 비행기, 선박, 자동차에 대해 '제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2선'을 통해 내지로 판매된 가공·부가가치 화물의 가치는 8,586만 7,000원으로 집계됐다. 해남 기업의 산업사슬 확장, 부가가치 제고를 촉진했다는 관측이다.

한편 면세 정책 조정으로 해남의 출도(出岛) 면세 시장도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다. 봉관 한달 동안 해남의 출도 면세 쇼핑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8% 증가한 48억 6,000만 원을 기록했다. 쇼핑객수는 30.2% 증가한 연 74만 5,000명, 쇼핑 물품 수량은 14.6% 확대된 349만 4,000개로 조사됐다.

/ 신화넷

## '세계의 슈퍼마켓' 의오 2025년 대외무역 8,365 억원... 역대 최고 기록



2025년 12월 17일, 절강성 의오국제비즈니스성에서 한 쿠웨이트 상인이 크리스마스 상품 샘플을 고르고 있다. / 신화넷

'세계의 슈퍼마켓'으로 알려진 절강성 의오의 대외무역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의오세관에 따르면 2025년 의오의 대외무역 수출입액은 처음으로 8,000 억원을 돌파한 8,365 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중 수입액은 전년 대비 32.3% 늘어난 1,058 억원으로 집계됐다.

의오국제비즈니스성은 8만개에 육박하는 매장에서 210여만 품목의 상품이 판매되며 세계 233개 국가(지역)와 무역거래를 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의오(소계) 국제허브항이 운영에 들어가고 의오글로벌 디지털무역센터가 정식 개장됐다. 의오의 개방 통로가 꾸준히 확대되고 디지털 무역 생태가 빠르게 형성

되면서 소규모, 다품목의 소상공이 세계 각지로 팔려나가는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입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5년 의오 다국전자상거래 수입 리스트는 1억개가 넘으며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성숙되고 다원화된 물류망, 효율 높은 배송 체계와 더불어 비교적 낮은 물류비용이 의오 다국전자상거래산업의 발전 속도를 끌어올리는 유리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의오종합보세구, 의오보세물류센터에는 121개 다국전자상거래 기업이 모여있고 티몰 글로벌, 징둥월드와이드 등 주요 다국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이곳에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신화넷

## 산서성, 2025년 신에너지 발전량 1,000 억키로와트시 돌파

2025년 산서성 신에너지 발전량이 전년 대비 26% 증가한 1,180억 키로와트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약 3,500만가구의 한해 전력 사용량으로 표준석탄 3,600만톤을 절감하고 약 8,800만톤의 이

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국가전력망(国家电网) 산서성전력회사에 따르면 2025년 산서성에서 신설된 시스템 연결 풍력·태양광 신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전년 대비

53.1% 확대된 1,691만 4,000키로와트에 달했다. 2025년말 기준, 산서성 신에너지 설비용량은 7,880만 8,000키로와트로 산서성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약 50%를 차지했다.

한편 산서성은 시장거래를 통해

신에너지 전력을 소화·수용하고 있다. 2025년 신에너지 시장거래 전력량은 222억키로와트시로 신에너지 발전량의 18.8%가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 신화넷



## 심수, 실버 소비 촉진 행동 전개

1월 21일, 심수시 라호구(罗湖区)의 실버 소비 브랜드 체험 전시 구역에서 관람객이 반려 로봇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2026년 심수시 실버 소비 촉진 행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심수시민정국은 '심수시 중증 이상 장애 로인에 대한 양로서비스 소비 보조금 지급 프로젝트'를 발표한 동시에 '심수시 실버 소비 지도' 디지털 계획을 시작, 전역이 협력하는 새로운 실버 소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 신화넷

# 辛勤劳动 万事如意

富强民主文明和谐  
自由平等公正法治  
爱国敬业诚信友善



河南舞阳 周松晓作